

고흥유자축제, 3년 연속 전남도 대표축제 선정 쾌거

콘텐츠 경쟁력·지역상생·안전관리까지 전 분야 높은 평가... 도비 3천만 원 받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대한민국 최대 유자 산지인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개최된 '고흥유자축제'가 2026년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3년 연속 대표 축제 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현장 평가 50%와 서면·발표 평가 50%를 거쳐 이뤄졌으며, ▲콘텐츠 차별성 ▲조직 운영 역량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관리체계 등 전 분야 항목에서 고된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고흥유자축제는 외부 대행사 중심의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축제의 전 과정을 기획·운영하는 협력형 축제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자 생산 농가가 직접 참여해 구성한 유자농가 마을 길놀이, 유자마을 존

캉스' 프로그램은 주민이 단순 참여자가 아닌 축제의 주체로 나서는 구조를 확립하며, '주민 참여형 축제의 모범 사례'로 심의위원단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최근 강화된 축제 안전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 안전 요원 집중 배치 ▲환경정비 및 친환경 축제 운영 ▲로컬다이닝존의 맛·양·값 적정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30만여 명이 방문했음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하여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모범 축제로 평가받았다.

축제 기간 전후로 유자 판매장 양꼬치 연장 운영, 유자전망대와 유자밭 야간경관 개방 등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한 결과, 직접 경제효과는 275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축제가 단순 방문 이벤트를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체류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유자축제가 3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것은 유자 농가와 주민, 상인, 공직자가 함께 만들

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고흥유자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인근 관광객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해 유자 축제를, 전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산물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본격 시동

1월 20일부터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추진했던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오는 16일까지 모두 마치고,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곡성신청상품권(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대상 주민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신청 초기인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

수를 통해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를 이어간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이패스 기록, 핸드폰 통화기록 등을 확인해 곡성군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 접수 후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다음 달 확정하고 신청 다음 달 말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최초 지급 시점은 1분기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진도군은 '2026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 동안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실무 역량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진도군, 27일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고품질 쌀 재배기술, 논콩 등 전문 재배 기술, 농업경영 교육

교육 내용은 고품질 쌀 재배 기술을 비롯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논콩, 노지채소(대파, 배추 등), 만감류와 유자의

품목별 전문 재배 기술, 농업경영(농업정책, 법률) 교육 등 10개 과정이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2월 3일부터는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7개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읍면 순회 교육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의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영광군 보건소,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 시행

영광군은 1월 12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영광군 보건소는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해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 경로당 및 마을 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올해 888명을 목표로 결핵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핵 검진은 흉부 X-선 촬영 후 실시간으로 판독하여 유소견자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객담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복약관리 및 상담, 가족접촉자 검진지원 등 완치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결핵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무안군, '결핵 ZERO 건강 무안' 찾아가는 결핵검진

무안군(군수 김산)은 감염에 취약하고 결핵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높은 편으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결핵 발생률은 65세 미만에 비해 약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의 경우 정기적인 결핵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안군은 '결핵 ZERO 건강 무안' 실현을 목표로 매년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해 검진 대상자 설문조사와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장흥 물축제, '전남이 선택한 1위' 대표축제 최우수 선정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026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대표축제는 시군에서 제출한 21개 축제를 현장평가 50%와 축제심의위원회의 서면 및 발표 평가 50%를 합산해 선정한다. 지난 8일 열린 축제심의위원회는 축제·관광·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관광객 유치 가능성 ▲콘텐츠 완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라남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도심을 흐르는 탐진강을 활용해 참여형 물놀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